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난감 대여점 총 990여 점 갖춰 ‘인기’

정읍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점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145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1일 평균 30여 명이 이용하는 등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장난감 대여점을 찾고 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발달 단계별로 필요한 장난감을 대여해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시는 아동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지동(문학길 12)에 소재한 장난감 대여점은 2016년 12월 개관해 423종 총 990여 개의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손됐거나 수리가 불가한 장난감을 폐기하고, 42개의 신규 장난감을 구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전북 고창군이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을 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추진한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2018년 상반기 22개 마을을 지원했고, 해마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지원 마을을 꾸준히 늘려왔다. 올해는 70개의 마을을 선정해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공동급식 기반시설을 갖춘 마을 중 농가가 20인 이상인 마을이 지원대상이며, 마을당 320만원을 농번기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지원한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도시락 배달과 마을 인근 식당을 이용했다.
그러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전면 개방됐고, 마을 공동급식도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영농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시재생 예비사업 본격 시작

정읍시, 신태인읍·초산동 2개 지구 주민역량 강화 교육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2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신태인읍·초산동)’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침체한 상권 등 각 지역이 가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억2천만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공동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또, 소규모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계성 강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신태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시끌시끌 와글와글 신태인’을 테마로 사업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신태인 문화학교 ▲신태인 야시장 등 지속 가능한 원도심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초산동 예비사업은 ‘스스로 만드는 살고 싶은 마을 초화로’를 테마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두꺼비집 수리 공동체 육성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골목 정원 조성 등 소규모 그린 뉴딜정책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17일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와 초산동 새마을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 현안 해결 등 주민참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주도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신태인·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2023년에 뉴딜사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5월 정읍 역사 인물 동학농민혁명 ‘전봉준’ 선정

고부 봉기~원평·태인전투까지

정읍시는 5월의 정읍 역사 인물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을 선정했다.
전봉준(1855-1895)은 1890년 동학에 입교,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으로부터 고부지방의 동학 접주(接主)로 임명됐다.
1892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농민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재물을 빼앗는 탐학과 비행을 자행하자 1893년 농민들은 전봉준을 장두(狀頭 :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의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로 삼아 조병갑에게 진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쫓겨났다.
이에, 1894년 2월 15(이하 양력 기준)일 1,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기해 고부 관아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불법으로 강탈당했던 세곡(稅穀)을 농민들에게 돌려줬다.

정읍시는 5월의 정읍 역사 인물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녹두장군 ‘전봉준’을 선정했다.

1만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5월 1일 고부 백산(백산대회)에 모여 전봉준을 동도대장(東徒代將)으로 추대하고 손화중, 김개남을 총관령으로 삼아 5월 11일 황토현에서 관군을 격파하고 파죽지세로 5월 31일 전주성을 점령했다.
이후, 전라도 각 지방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해 동학의 조직강화에 힘쓰고 도정에 참여 감시했으나 근본적인 시정개혁이 실현되지 않자 동학농민군은 10월 8일 기점으로 전라·경상·충청 각지에서 재봉기했다. 하지만 관군과 일본군의 반격으로 패배 했다.
또한 공주 우금치에서 대격전 끝에 대패하고 나머지 농민군도 태인 싸움을 끝으로 해산했다.
전봉준은 정읍으로 피신했다가 순창에서 부하였던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고, 재판을 받은 뒤 교수형에 처해졌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적·예술적으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재조명되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변산마실길 1코스 샤스타데이지 활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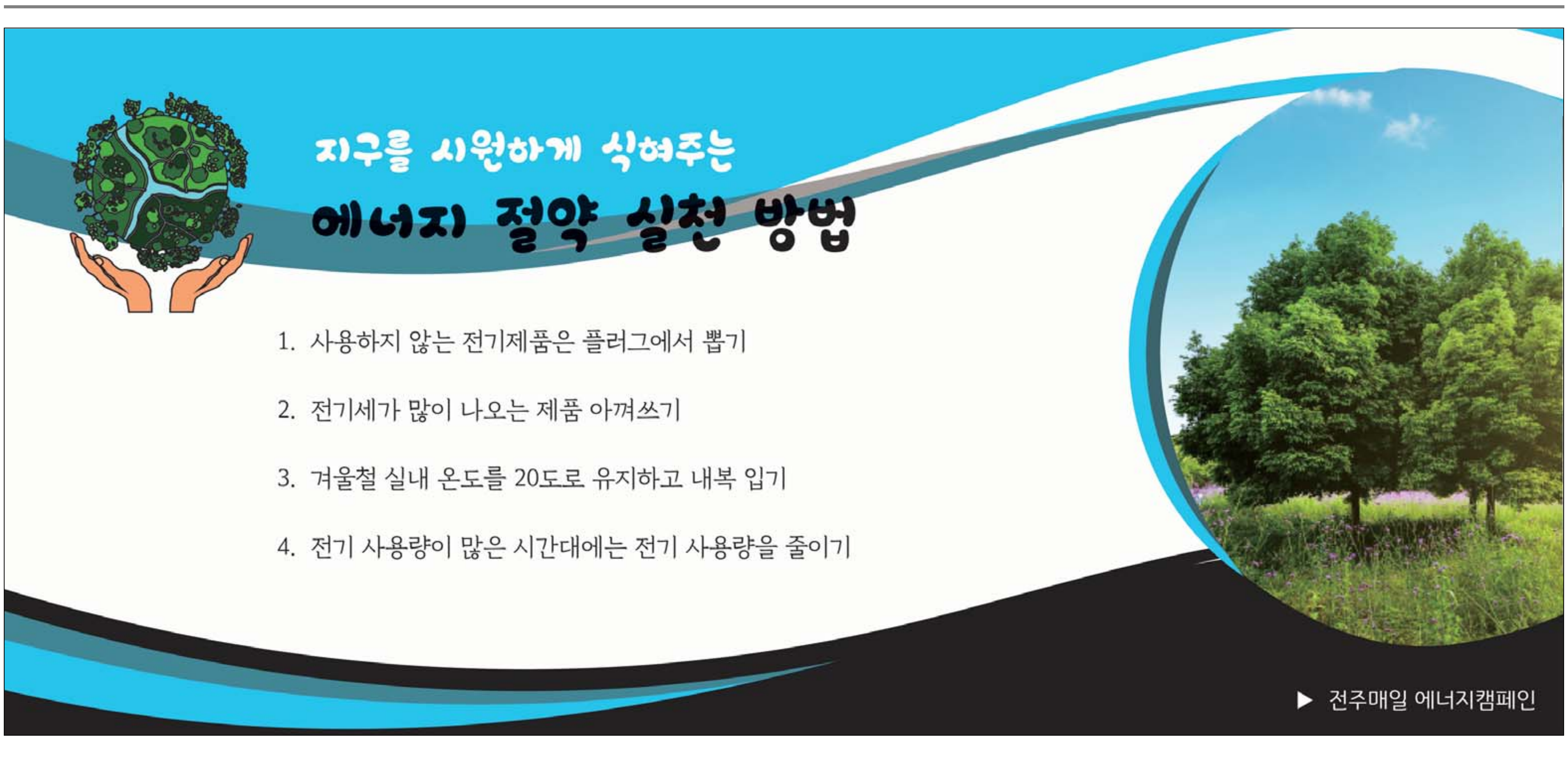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색 있는 부안 변산마실길 제1코스(새만금박물관~송포항)에 샤스타데이지 꽃동산 경관이 절정을 이루며 관광객 및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재 부안 변산마실길 제1코스의 샤스타데이지 개화율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으며 이번 주말까지 전국의 사진작가와 관광객 및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샤스타데이지는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조성된 장소가 거의 없어 매년 봄기운이 무르익는 5월 부안 변산마실길을 찾는 관광객과 탐방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안 변산마실길 제1코스의 샤스타데이지는 순백의 꽃물결이 일렁이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아름답지만 해질 무렵 서해낙조와 함께 즐기면 무릉도원에 온 듯한 황홀경을 느낄 수 있다”며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산·들·바다가 아름다운 부안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새희망 원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6.1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했다.

“오직 시민과 함께 정읍 발전을”

민주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대위 발대식 가져

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11시 정읍우체국과 전북은행 사이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새희망 원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6.1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인 윤준병 국회의원, 강광 총괄선대본부장(전 정읍시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이호춘 회장,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 그리고 최민철 전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관계자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학수 후보는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풍요로운 민생경제’, ‘품격있는 교육문화’, ‘함께행복 나눔복지’, ‘시민참여 열린시정’의 4대 목표에 맞춰 준비한 80개의 세부공약과 비전을 시민들께 약속했다”면서 “약속은 실천에 옮겨 오직 시민과 함께 정읍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일꾼으로서 정읍과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후보들을 지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탄소중립 선도도시 공약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육성시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부안형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일반공약 2호로 발표했다.
권 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소시범도시’ 2026년까지 조성해, 부안군에 수소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 주거와 교통 등 주민 생활의 혁신을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도록 군정의 최우선 순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권 후보는 이를 위해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단지내 친환경수전해 수소생산기지를 구축 △수소 생산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연구와 실증 △수소 산업의 생산 및 집적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소차 확대 보급과 수소충전소 2호 건립, 수소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및 수소연료전지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자연료전지신뢰성평가센터(국비196억원)를 유치해 현대자동차 기업부설연구소, 수소연료전지 기업, 수소용기제작 기업 등이 자연스럽게 입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탄소중립시대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권익현 후보는 민선7기 동안 수소 산업의 밑그림을 그린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히고 향후 수소산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번 더 권익현”을 선택 해 달고 호소했다.
/부안=김석진 기자